

광주시, 코로나19 소아전담 병상 22개 확충기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 개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논의
응급실 당직의사 핫라인 운영·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등 시행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급증에 따라 소아전담병상 22개를 확충키

로 했다. 시는 지난 19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광주소방안전본부, 5개 자치구 보건소, 6개 병원 응급의료센터,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환자 수용

성 제고, 응급 이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2~3차 의료기관 응급실 전원 필요 시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수용 가능한 2~3차 의료기관 확인 후 이송도록 하는 의료기관 간 전원체계 구축 ▲위중증환자 이송 시 119,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간 핫라인 운영 ▲권역센터의 집중화·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간이격리구역 설치 등 코로나19 환자 적극 수용 치료(중앙정부 건의 및 시범 운영 후 확대) ▲전남대학교병원에 소아전담 중증병상 2개, 기독병원에 소아전담 중증병상 20개 등 코로나19 소아 전담 병상 지정 등을 통해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등 신속한 응급이송체계 유

지와 선제적 대응전략을 시행하기로 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개시

전기차 세계 혜택 후 기준 5천200만 원부터 구성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22일부터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2 부산 국제모터쇼' 현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라인업이자 기존 SUV 위주였던 전기차의 틀을 깨는 스트림라이너 유형의 모델이다.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세계 최고 수준 전기소비효율(18인치 휠, 스탠다드 2WD 기준)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넉넉한 1회충전 주행가능거리(18인치 휠, 롱레인지 2WD 기준)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 0.21 ▲매끈한 유선형 외장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으로 최적화된 안락한 실내공간 ▲차와 사람이 교감하는 다채로운 라이팅 기술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모델로 평가된다.

아이오닉 6는 53.0kWh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기본형)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

(향속형)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되며, 롱레인지는 74kW 전륜모터가 추가된 HTRAC(사륜구동)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HTRAC을 선택하면 최대 239kW 출력과 605Nm 토크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5.1초만에 주파하는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합리적인 가격 구성을 통해 구매 고객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전기차 세계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200만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천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천845만원 ▲프레스티지 6천135만원 ▲E-LITE 2WD 5천260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되는 ▲EV 성능 튜닝 기술과 현대차 최초로 주요 전자제어장치까지 범위를 확대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 ▲실내 V2L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 보행자, 자전거탑승

자, 교차로대향차)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배터리 히팅 시스템 ▲히트 펌프 시스템 등을 기본사양으로 적용해 우수한 상품성을 확보했다.

이어 ▲듀얼 컬러 엠비언트 무드 램프(속도 연동 기능 포함)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지능형 헤드램프(IFS)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등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기능들과 함께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및 일

체형 대시보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20인치 휠 & 피렐리 타이어 ▲와이드 섀시 등을 선택사양으로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 ▲수명이 다한 페타이어 재활용 도료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도료로 입힌 내·외장 도색 ▲친환경 공정으로 가공된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한 시트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을 입힌 대시보드 ▲바이오 PET 원단으로 제작된 헤드라이너 ▲페어링 재활용 원사로 제작한 카펫 등 다양한 친

환경 소재를 곳곳에 녹여냈다.

또한 세련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3가지 핵심 색상 ▲바이오 필릭 블루 펠 ▲디지털 그린 펠 ▲그래비티 골드 매트릭을 비롯해 ▲어비스 블랙 펠 ▲세레니티 화이트 펠 ▲녹틴 그레이 메탈릭 ▲트랜스미션 블루 펠 ▲디지털 그린 매트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등 9종의 외장 색상과 ▲다크 그린/라이트 그레이 투톤 ▲다크 그레이/라이트 그레이 투톤 ▲블랙/브라운 투톤 ▲블랙 모노톤 등 4종의 내장색상으로 운영한다.

/이문수기자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22일부터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라인업이자 기존 SUV 위주였던 전기차의 틀을 깨는 스트림라이너 유형의 모델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담양군민 “경찰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신청 과하다” 주장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6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담양군민들이 경찰의 이병노 군수 구속영장 신청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민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직군수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군민 B씨는 “이병노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거미박물관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행정이 퇴보될 수 있다”고 했다. 군민 C씨는 “하반기부터는 중앙행정부처나 국회 등을 방문해 담양군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담양군 예산 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광주 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규진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장을 바탕으로 소시지권 이행을 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정시대, 외장,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계획, 시공을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시지권 이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다을 수 있습니다.